

“팬 아니어도 OK... 호랑이 가족 잔치에 초대합니다”

KIA, 27일 ‘호랑이 가족 한마당’
‘열혈 팬’ 개그맨 박성광 사회
선수 사진·시즌 영상 불거리 풍성
팬 사인회·경품도 다양

KIA 타이거즈가 팬들과 2018시즌을 돌아보는 자리를 갖는다.

KIA는 오는 27일 오후 12시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8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팬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된다.

KIA 선수단 전원은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예정이다. 선수들의 숨겨진 끼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도 준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KIA의 열혈팬인 개그맨 박성광씨가 진행을 맡아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은 불펜 및 더그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팬 사인회 ▲선수단 사진전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및 군 지역 선수 소개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응원단 응원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도 마련된다.

사전 접수를 한 팬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시간이 펼쳐진다. 장기자랑에 참가하고 싶은 팬은 이메일(lovekiatigers@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수단 역시 팬들을 위한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타이거즈 에코백’과 호걸이 스마트폰 받침대 등 증정된다.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팬들은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를 통해 입장 티켓을 신청하면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며, 접수는 24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팬 사인회로 대체된다.

한편 KIA 선수들은 팬들을 만나기에 앞서 훈련을 재개하며 내년 시즌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2018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사진은 2016년 행사에서 김기태 감독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에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대신 우승을 기념하는 대규모 ‘V11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16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끝으로 휴식에 들어갔던 KIA 선수들이 25일 챔피언스 필드에 다시 모인다. KIA 선수들은 가볍게 몸을 풀면서 지난 시즌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2019시즌 준비도 시작된다.

‘마무리 캠프’인 이 오는 29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긴 구장에 캠프를 차린다. KIA는 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캠프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이끌어갈 ‘원석’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운 시즌을 이끌어갈 ‘원석’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IA는 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캠프를 통해 새

로운 시즌을 이끌어갈 ‘원석’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IA는 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캠프를 통해 새



이청용·황희찬 훈훈한 ‘코리안 더비’

독일 분데스리가2 보훔 vs 함부르크전...경기 후 유니폼 맞교환

축구대표팀 선후배 이청용(30·보훔)과 황희찬(22·함부르크)이 첫 맞대결을 펼친 뒤 유니폼을 교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황희찬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청용과 유니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며 “그냥 최고”라고 짝막한 소감을 밝혔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2(2부리그)에서 뛰는 이청용과 황희찬은 지난 21일 독일 함부르크 폴크스파크슈타디움에서 열린 분데스리가2 정규리그 경기에서 나란히 선발 출전해 양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두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이청용은 보훔의 2선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청용은 주로 뒷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

는 역할을 맡았다.

슈팅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정확한 패스로 중원을 지휘했다. 그는 패스 성공률 88.2%를 기록했다. 이청용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교체되지 않고 마음껏 경기장을 누볐다.

황희찬은 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상대 팀 뒷 공간을 적극적으로 누볐다.

전반전 22분엔 왼쪽에서 흐른 공을 페널티 아크 뒤에서 강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는 등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쳤다.

황희찬은 후반 25분 교체됐다. 양 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둘이 맞대결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

홈에서 강한 류현진, WS 3차전 등판 유력

MLB 닷컴 전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식을 전하는 MLB닷컴이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WS) 3차전 선발 등판을 예상했다.

다저스 선발진 상황과 홈에서 강했던 류현진의 기록을 두루 살피며 내린 전망이다.

MLB닷컴은 22일 “클레이턴 커쇼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WS 1차전 선발로 나서면 리치 힐은 4차전 선발로 밀린다. 이럴 경우, 워커 불러가 2차전에 나서고 류현진이 3차전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류현진은 올 시즌 홈에서 평균자책점 1.15를 올렸다. 밀워키 브루어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서는 방문 경기에서만 두 차례 등판해 평균자책점 8.59로 부진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은 NLCS에서 규정 이닝을 채

운 투수(8명) 중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다저스는 24일부터 보스턴과 7전 4승제의 WS를 치른다. 24일과 25일에는 보스턴의 홈 펜웨이 파크에서 1, 2차전을, 27~29일 다저스의 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3~5차전을 연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의 키는 커쇼가 쥐고 있다. 하지만 류현진의 등판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커쇼는 21일 밀워키와의 NLCS 7차전에 마무리 투수로 나서서 공 15개를 던졌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커쇼와 힐, 두 명을 1차전 선발 후보로 꼽았다. 커쇼의 1차전 선발 등판이 어려워지면 힐을 1차전에 내세우고, 커쇼가 2차전에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은 3차전 홈 경기 선발이 유력하다.

류현진은 올해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1.15로 호투했다. 반면 방문 경기에서

는 2승 1패 평균자책점 3.58로 주춤했다.

포스트시즌에 들어선 뒤에는 홈에서 더 강했고, 방문 경기에서는 더 부진했다.

류현진은 5일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에서 7이닝 4피안타 1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했다.

그러나 밀워키 밀러파크 마운드에 선 14일 NLCS 2차전(4.1이닝 6피안타 2실점)과 6차전(3이닝 7피안타 5실점)에서는 부진 끝에 조기 강판했다.

류현진은 2013년 10월 8일 25일 보스턴전에서 5이닝 5피안타 4실점 한 뒤 한 번도 상대와 마주치지 않았다.

류현진은 이번 가을 5년 만에 보스턴과 재대결하는 순간, 한국인 최초로 WS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역사’를 쓴다. /연합뉴스

전북 최강희 감독, 결국 K리그 떠난다

중국 텐진 취안젠 감독 계약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전북 현대 최강희(59) 감독이 결국 K리그를 떠난다.

전북 구단은 22일 최강희 감독이 전북을 떠나 중국 슈퍼리그 텐진 취안젠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발표했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은 14년간 잡았던 전북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텐진의 제의를 수락했다”라며 “계약 기간(2020년까지)이 남아 있지만, 구단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최강희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강희 감독은 구단을 통해 “전북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팀”이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팬들과 서포터즈, 구단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몸은 떠나도 전북을 응원하고 함께했던 순간을 가슴속에 간직하겠다”라고 전했다.

2005년 7월 전북 사령탑으로 부임한 최강희 감독은 K리그 6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



스리그 2회, 대한축구협회(FA)컵 1회 등 총 9차례 우승을 이끌며 전북을 명문 구단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닥공’(닥치고 공격)이라는 공격 축구 철학을 앞세워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에도 스피릿 라운드 전에 리그 우승을 확정 짓는 등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최강희 감독은 올 시즌 전북의 남은 경기를 모두 이끈 뒤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